



광주비엔날레 참여 작품인 시타미치 모토유키의 '14세&세계&경계'는 광주 지역 14세 아이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담긴 광주일보 지면 13개로 구성돼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학생들에 ‘정답’ 없는 질문 던져보고 싶었다”

‘광주일보’ 지면으로 작품 만들어 광주비엔날레 출품한 日작가 시타미치씨

‘14세&세계&경계’ 작품 완성

“아이들도 저도 새로운 경험

연재 광주일보와 재단에 감사”

2018 광주비엔날레 출품작인 시타미치 모토유키(사진)의 '14세&세계&경계'는 광주 지역 14세 아이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담긴 '광주일보' 지면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시타미치 작가는 지난해부터 광주 아이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과 함께 스스로가 생각하는 '경계'에 대한 글을 작성했고 작가가 선정한 '글'은 지난 8월16일부터 13주간 매주 금요일 광주일보 1면(3면)에 연재됐다. 작품이 실린 지면은 매주 하나씩 전시장에 첨가됐고, 마지막 글이 실린 9일자 신문을 끝으로 작품이 '완성'됐다. 친구와의 관계와 외모에 대해 고민하고,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헤쳐나가는 아이들의 '진솔한'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교황의 만남, 아시안게임 개막, 태풍 콩레이, 도시철도 2호선 등 굵직한 이슈와 함께 지면에 실렸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자신들이 아이였던 시절을 기억하며 추억에 잠기기도 했고,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독특한 시각을 접하며 감탄하기도 했다. 11일 비엔날레 폐막을 앞두고 시타미치 작가와 이메일 인터뷰했다.

—현재 비엔날레에는 12개 지면이 전시돼 있고 9일자 신문에 실린 글까지 전시되면 13개로 작품이 완성됩니다.

▲중학교 수업시간은 어쩔 수 없이 어른이 준비하는 질문에 늘 '답답'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교육은 사회에 순응하는 어른으로 키우는 공간으로 큰

대에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통 학교에서 많이 듣지 못하는, 정답 없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져, 나름 생각을 하도록 한 뒤 글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답답'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더 나아가 자신의 목소리가 여러 사람들앞에서 발표되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재미있는 문장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뭔가 새로운 경험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같이 경험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이 작업은 저의 자기표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가 '편집자'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중학생의 말을 신문에서 연재하는 외부 편집자 역할이죠. 중학생의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작업입니다. 아이들이 신문을 무대로 본인들의 목소리를 발표할 수 있는 일, 이런 기회는 실현하기 어렵죠. 연재를 이해해 주신 광주비엔날레와 광주일보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제작하기 전 아이들의 글만 읽었을 때, 신문에 실린 글을 읽었을 때, 비엔날레관에 전시된 신문에 글을 읽을 때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건네고 싶으셨나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신문에서 이 연재 기사를 만납니다. 처음에는 “어? 이런 게 있나 보네?” 하다가 점차 “저런에도 봤네”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흥미가 생겨 계속 읽어주는 분도 계시고 마음이 울리는 독자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점을 목표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런 독자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전시는 신문기사 아가

이브로 구성되어 한꺼번에 볼 수 있고 신문 1면에 실린 여러 이슈와 함께 아이들의 이야기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다른 방식으로 체험 하셨을 겁니다.

중학생들의 마음은 늘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어른의 사회적 '상식'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계선 상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말에는 '상식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고, 저는 그것들을 견뎌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작업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이 수업을 진행했을 때, 1년 후에 어떤 학생을 만나러 문장을 들고 갔는데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그는 “제가 이렇게 유치한 문장을 썼었던가요?”라고 했습니다. 중학생은 금방 어른이 되고 그 의문도 사라져갑니다. 지면에 날마다 올라오는 큰 이슈와 함께, 그들의 작은 목소리를 남길 수 있어 기쁩니다.

—‘경계’에 대한 아이들의 대답은 다양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셨는지요.

▲학생들 중에는 제가 생각하는 모범적인 답을 찾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제 의도를 이해 못하지만 모르는 만큼 스스로 생각하고 본인의 생활을 관찰해 보고, 발견하고 본인 나름의 글로 풀어쓴 학생의 경우엔 글을 잘 썼다 혹은 못 썼다가 아닌, 마음을 울리는 감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적 감각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많이 읽은 제 질문에 조금 반항적인 태도로 답을 쓴(제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는 문장) 학생도 있었는데 그것도 훌륭한 문장이어서 선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일본·한국·말레이시아 등에 이어 홍콩에서 진행 중입니다. 나라마다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르다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의외로 중학생들이 쓰는 이야기는 나라마다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 ‘힘로’

市, 소·중·대폭 3가지 개편안 제시
오늘 최종 보고회…북·광산구 반발
총선 선거구획정 前 조정 어려울 듯

흥 1·2·3동, 중앙동, 임동, 신안동, 문화동, 풍향동, 두암 1·2·3동, 석곡동) 동구 편입', '광산구 2개 동(첨단 1·2동) 북구 편입', '광산구 5개 동(월곡 1·2동, 운남동, 신흥동, 우산동) 서구 편입', '서구 풍암지구 남구 편입' 등을 담고 있다.

광주시가 자치구간 경계조정 최종 용역보고회를 열 계획이지만 일부 지역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 현 상태로라면, 오는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 이전에 광주의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다음 총선도 현행 자치구를 유지한 채 치러질 전망이다.

8일 광주시는 “9일 오후 3시 자치구간 경계조정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월 경계조정 용역에 착수해 지난 8월 27일에 중간보고서를 통해 소폭·중폭·대폭 등 3가지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1인인 소폭 조정안은 북구 6개 동(문화동, 풍향동, 두암 1·2·3동, 석곡동)을 동구에 편입하는 안이다. 2인인 중폭 조정안은 소폭 조정안인 1인에 광산구 첨단 1·2동을 북구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추가했다. 대폭 조정안인 3안은 '북구 12개 동(중

최종보고회에서는 기존 3가지 안을 하나로 선택·압축해 발표하지 않고, 설명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마련한 경계조정 최종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시안이 마련되면 준비기획단 논의, 시·구의회 등 정칙권 협의 등을 거쳐 조정안을 확정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반발도 거세다. 타 자치구 편입 가능성이 점쳐지는 북구·광산구 일부 지역 주민과 지역의회는 반대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는 반면, 동구는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어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또 행정부 심의에만 6개월여가 필요해 내년 상반기에 진행되는 2020 총선 선거구 획정 이전에 광주지역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국당, 5·18진상조사위원회 공모로 뽑기로

김성태 “지만원 추천은 불가”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 다음 주 내에 공모 절차를 밟기로 함에 따라 관련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추천할 것인 지 주목된다.

한국당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빠르면 내주 중 공모절차를 개시하고 당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성태 원내대표는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건에 대한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시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조사위 성격상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며 “군과 법조계, 학계를 망라해 객관

적인 입장에서 사실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이끌어 낼 균형잡힌 시각을 갖춘 인사를 선별해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극단적인 주장으로 진실 규명을 저해하거나, 국민적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으로 합리성이 결여된 인사, 공공연한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인사들은 당 인사추천과정에서 모두 걸러지게 될 것”이라고 밝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만원씨 추천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9월 시행된 5·18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에 국회의장과 여야교섭단체가 9명의 위원을 추천해야 하지만 한국당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위원회 구성이 지연됐다. 특히, 한국당 일각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지만원씨의 진상조사 위원 추천설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임동욱 기자 tuim@

광주시 국립트라우마센터 유치 총력전

설계 용역비 내년 국비 반영 요청

광주시가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유치를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펴고 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을 위한 건축실시설계 용역비를 내년도 국비에 반영시키기 위해 국회, 관련 기관 등을 잇달아 방문해 광주의 장점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6일 국회 예결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의 광주 설립 제안에 대해 “옛 국군광주병원

터에 트라우마센터 건립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 행정안전부에 뜻을 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광주시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광주 설립 가능성이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남은 기간 유치에 총력전을 펼 계획이다.

국가폭력과 고문 피해 생존자들의 트라우마 치유와 재활을 목적으로 국내 최초로 설립된 광주트라우마센터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 치유를 목표로 다양한 심리상담과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고문과 국가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인권증진 활동도 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

태양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노후연금처럼 100KW급 매월 300만원·50KW급 매월 150만원 수익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지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 영암, 완도, 진도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모듈: LG·한화큐셀 고효율 단결정
- 인버터: 이태리ABB, 독일카고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